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붉은 말의 해, 그 기운을 받아 활력과 도전, 성취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은 지난 한 해 자동차 산업을 관통하는
화두였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 주도권 경쟁에 더해 제어가 힘든 외부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대모비스는 어느 때보다 더 도전적인 경영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모비스는 새로운 비전 위에서 변화를 이끌고,
시장을 주도하며, 가능성을 확장하는 모빌리티 혁신 기업으로서, 한층 성장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도, 연결기준 매출 61조
1,181억원, 영업이익 3조 3,575억원, 당기순이익 3조 6,647억원이라는 경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액은 6.8%, 영업이익은 9.2% 증가하여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핵심부품 Non-captive 수주는
2025년 연간 91.7억 달러를 기록하여, 연간 수주목표 대비 123% 초과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 로봇틱스
분야 등에서도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제1회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 'Auto Semicon Korea'(ASK)를 개최하여,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차량용 반도체 협력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유럽과 북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현대모비스가 중심축이 되어 국내
반도체 기업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CES 2026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되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로 하며 로봇틱스 부품 사업에서 첫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차량용 부품 설계 역량과 축적된 양산 경험, 신뢰성 기반 평가 체계라는 현대모비스의 강점이 자동차를 넘어 로봇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기존 핵심부품 분야와 서비스부품 사업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장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HWD¹를 개발하여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했고, CGH² 기술을 활용한 AR-HUD³ 제품으로 북미 메이저 OE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2028년 양산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가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SDV⁴ 요소기술을 개발·확보하고 있으며, 자체 데모카 개발을 통해 당사 보유한 SDV 역량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전동화 분야에서는 중·대형 세그먼트용(250Kw급) 구동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였으며, 안전성을 강화한 열전이 방지 배터리 시스템 기술(TRP)을 확보하여 올해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5년 북미 전동화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글로벌 OEM에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한 유럽 신규 거점이 가동될 예정이며 제조 원가를 낮추고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LCC(Low Cost Country) 거점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샤시안전부품 사업에서는 차세대 By Wire 기술인 EMB⁵, SBW⁶, RWS⁷에 대하여 안정성·패키지·SW특화 수준에서 경쟁사 대비 경쟁력 있게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그 기반으로 국내·북미·유럽 완성차와 공동선행 및 프로모션 확대를 추진중입니다.

서비스부품 사업은 부품공급 협력사의 납입 환경 개선과 공급 의무 강화를 통해 A/S 부품 공급 서비스 수준을 지속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국내외 물류센터에 소물 자동화 설비 적용을 시작으로 미래 물류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¹ Holographic Windshield Display

² Computer Generated Holography

³ Augmented Reality-Head Up Display

⁴ Software Defined Vehicle

⁵ Electro-Mechanical Brake

⁶ Steer-by-Wire

⁷ Rear-Wheel Steering

영남물류센터 가동에 이어 지역별 통합물류센터 단계적 확대 계획을 통해 중장기 A/S 공급 네트워크 최적화와 수익성 제고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대모비스의 목표]

지난해,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톱 플레이어로의 선도 의지를 담아 Lead the shift in mobility, Move the world beyond possibilities 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혁신 기술과 솔루션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유기적인 협업(Dynamic Synergy), 선도기술 확보(First Mover), 한계를 넘는 가능성의 확대(Expanding Possibility) 라는 세가지의 핵심 가치를 실천해 비전을 현실화하려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다음과 같은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선행연구 활성화를 통해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가장 우선적인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부품 산업은 전동화와 SDV 전환을 중심으로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서 차세대 핵심 요소 기술을 발굴·고도화하고, 부문 간 경계를 넘어 융복합 미래 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차량 개발 초기 단계에 우리의 선행 성과를 제안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와 양산 개발을 물 흐르듯 연결해 우리의 강점인 양산성과 제조 노하우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으로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현대모비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근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존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다가올 반세기를 대비한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조기에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어기를 직접 개발하는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완성차와 반도체 공급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핵심 반도체 설계 역량을 단계적으로 내재화하여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로보틱스 핵심 부품 사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와 기술적 유사성이 높고 아직 압도적인 시장 지배 기업이 없는 분야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그간 축적한 구동·제어 기술과 양산 및 제조 노하우에 기반해 로봇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 생산에 우선 집중하고, 센서와 제어기 등으로 사업 영역을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확보한 기술을 빠르게 제품화하고 적시에 시장에 제안함으로써 선도 기술 경쟁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에 없던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개발하고 검증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윈드쉴드 디스플레이와 SDV 기반 통합 솔루션, 차세대 제동 및 조향 기술, 전동화 시스템 등은 이러한 방향성 아래 개발과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기술은 완성차의 개발 효율과 설계 자유도를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모비스는 미래 핵심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수주 단계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의 수익성을 관리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체질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 선행개발을 통해 글로벌 고객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중국과 인도 등 핵심 성장 시장에서는 현지 맞춤형 전략을 통해 글로벌 OE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기술 경쟁력과 수익성, 그리고 글로벌 확장을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하여 선도 기술을 시장 성과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주주환원과 거버넌스]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이 균형을 이룰 때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일관된 원칙 아래 주주환원 정책을 운영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축적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2024년 11월 CEO Investor Day를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된 1기 중장기 정책과 2022년부터 3년간 시행된 2기 정책에 대한 주주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3기 주주환원 정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TSR(총주주수익률) 30% 이상이라는 목표 내에서 현금배당과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025년 사업연도에는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기준 6,500원을 지급하고, 자기주식 매입/소각과 기보유 자기주식 소각을 병행하여 TSR 30% 이상을 준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님들께 약속드린 주주가치 제고정책을 일관되게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주 의견을 반영한 주주환원 정책 수립을 통해 주주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 소통활동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24년에 이어 2025년 8월에도 CEO Investor Day를 개최하여 CEO와 경영진이 직접 주주님들께 회사의 주요 전략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C-Level이 직접 주관하는 국내외 투자자 대상 미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주주님들과 적극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당사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구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와 감사, 경영진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고양하고, 주주와 고객, 직원 그리고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적, 성별, 전문 영역 등에서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경영·기술·재무·산업·AI/SW·ESG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이사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AI·SW·반도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사외이사(Keith Witek)를 선임하여,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 환경에 대한 이사회와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사회 독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도적 의무사항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사외이사를 선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모두 구성원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모든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와 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4월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회’ 제도를 도입해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전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주주추천으로 선임된 사외이사(장영우 이사)가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NDR을 통해 청취한 주주님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이사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2026년부터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으로 활동해주실 주주추천 사외이사로 박현주 후보를 선임하고자 하며, 주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선도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 그리고 글로벌 고객 확대라는 중장기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기술과 품질에 기반한 경쟁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주주환원과 건전한 거버넌스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성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주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가정이 늘 건강하고 화목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사장 이 규 석